

제 246호 · 2014년 3월 5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 KMI

##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 CONTENTS |

#### 물류정책·사업동향

1. 뉴질랜드 오클랜드항 당기순이익 증가세로 전환
2. 제너럴 다이내믹스사, 세계 최초 LNG 연료사용 컨테이너선 건조 시작
3. 중국, 러시아와 접경지역 통강 철도교각 착공
4. CMA CGM, 아프리카시장 영향력 확대 추진

#### 물류시장동향

1. 인도 ECU Line, 아태지역 사업 확장 발표
2. Maersk Line, 운임하락으로 4분기 수익 감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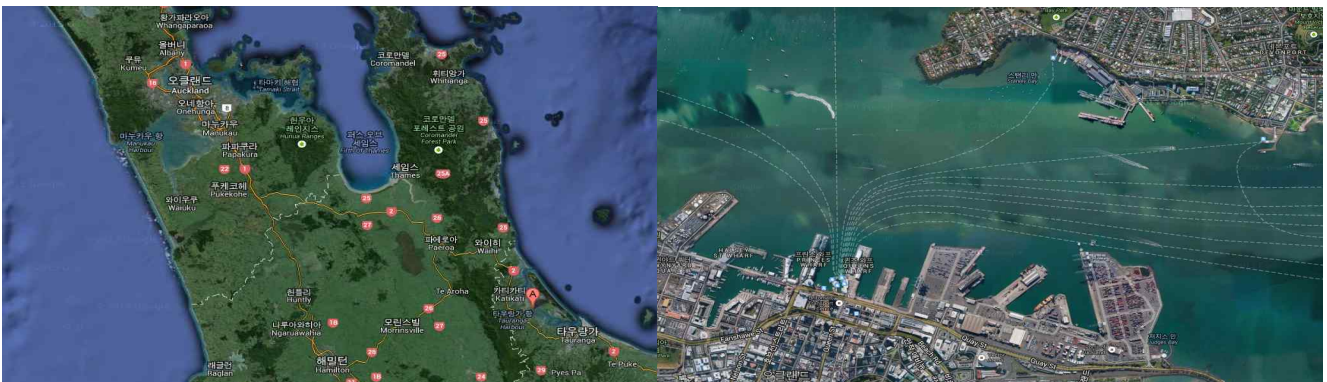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 뉴질랜드 오클랜드항 당기순이익 증가세로 전환

- 2013년도 뉴질랜드 오클랜드항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70% 증가된 NZ\$26.4백만달러를 기록
  - 2013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총매출액은 17% 증가된 NZ\$107.2백만달러 달성
  - 뉴질랜드 오클랜드항의 총처리 컨테이너물량은 15% 증가된 476,333TEU
  - 차량을 포함한 일반화물(Breakbulk)은 42% 증가된 2.8백만톤 처리
  - 오클랜드항의 최고경영자인 토니 깁슨(Tonny Gibson)씨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시행된 오클랜드항 재건축에 따른 생산성 증가가 가장 큰 매력요인인 것으로 분석
-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타우랑가항(Port of Tauranga)은 16% 증가한 NZ\$137.1백만달러(일회성 자선 매각을 제외하면)의 매출 기록
  - 타우랑가항의 당기순이익은 NZ\$39.3백만달러를 기록하여 예년 수준
  - 전체 화물처리량은 6% 증가한 9.9백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컨테이너 물량은 12% 감소한 381,038TEU를 기록
  - 타우랑가항의 최고경영자 마크 케언스(Mark Cairns)씨는 주요 수입화물선사의 기항지변경과 주요 시설투자 실패에 따른 결과로 표현
- 반면 사우스항(South Port)의 매출은 NZ\$14.6백만달러로 5%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세후 NZ\$2.68백만 달러로 8% 감소
  - 전체 화물처리량은 비료, 식품수입과 원목수출 증가에 따라 8% 증가한 1.37백만톤 처리

## &lt; 뉴질랜드의 오클랜드항 위치 및 전경 &gt;

자료 : <https://maps.google.co.kr/>자료 : [www.portstrategy.com](http://www.portstrategy.com) 2014.2.26김우선 전문연구원 (☎ 02-2105-2889, [firstkim@kmi.re.kr](mailto:firstkim@kmi.re.kr))

## □ 제너럴 다이내믹스사, 세계 최초 LNG 연료사용 컨테이너선 건조 시작

- 미국 샌디에고에 위치한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나스코 조선소에서 세계 최초로 LNG 연료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 건조를 시작
  - 건조되는 선박은 3,200TEU의 멀린급 컨테이너선 2척으로,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해운물류회사인 TOTE사가 발주
  - 해당 선박의 선장은 232m이며, 건조비용은 3억5천만 USD 소요 예상
- 해당선박은 미국 뉴저지 잭슨빌 항에서 푸에르토리코까지의 항로에 투입 예정
  - 두 척 모두 2015년 말 또는 2016년에 TOTE사의 자회사인 Sea Star에 인도 예정
  - 멀린급 해당 선박들은 기존 항로에서 Sea Star가 운항중인 선박들 보다 60% 더 많은 화물운송 가능
- TOTE사는 강화되는 환경규제 및 미국 내 새로운 선박 연료로서의 LNG사용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LNG 선박 도입 추진
  - TOTE사는 2012년에 미국 알래스카 자치회의 여러 환경보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알래스카를 운항하는 RO/RO 선단을 LNG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
  - 또한 타코마, 워싱턴, 앵커리지, 알래스카 항로를 운항하는 2척의 선박을 2016~2017년까지 LNG 선박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
  - 멀린급 선박을 LNG 선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배출량보다 이산화황 98%, 아산화질소 및 이산화탄소 99%, 그리고 미세먼지 71% 감축 가능
- 현재 42척의 LNG 선박이 전세계에서 운항되고 있고, 37척이 추가로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며, Sea Star가 운영할 멀린급 선박은 세계 최초의 LNG 컨테이너선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선박
  - Sea Star는 이미 선박에 LNG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Pivotal LNG와 WesPac Midstream과 체결
  - 두 회사는 잭슨빌 항에 LNG 공급시설 건설도 계획 중

<http://toteinc.com>, 2014.2.25., <http://www.porttechnology.org>, 2014.2.26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mailto:hmjeon@kmi.re.kr))

## □ 중국, 러시아와 접경지역 통강 철도교각 착공

- 중국은 흑룡강성과 러시아 예브레이스카야 자치주를 잇는 철도교각 건설에 착공 하였으며 오는 2017년 준공시킬 예정
  - 이 교각은 아무르강을 통과하는 교각으로 전체 길이는 6,735.91m이고 건설비용은 약 27억 위안 수준
  - 양국을 잇는 교각을 통해 국경무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연평균 약 2,100만 톤의 화물이 운송될 것으로 예상
- 흑룡강에서 러시아까지의 운송수단은 주로 선박이었으며 겨울에는 강이 결빙하여 운송에 제약이 발생
  - 도로운송의 경우 거리 대비 운송비용이 높고 운송할 수 있는 화물량이 적기 때문에 대량의 벌크화물 운송에는 한계
- 통강 철도 교각의 1단계 운송능력은 연간 520만 톤이며 2단계에서 2,000만 톤으로 확대시킬 예정
  - 통강 철도는 앞으로 러시아와의 수출입 물류에 중요한 수단이 될 전망
- 중국철도총공사는 통강 철도가 중국 동북아 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서 중국 동북지역 공업기지의 재개발과 자원운송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중국 지방정부는 향후 러시아와의 전자상거래 물류를 위한 플랫폼과 자유무역구 설치 신청 추진을 계획
  - 또한 통강 철도 사업이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권과 해상실크로드 경제권 설정에 부합되는 경제, 물류, 문화, 정치 교류 등의 종합적 의미가 있는 이익 공동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

### < 통강 철도교각 위치 >



자료 : Xinawang(2014.2.27.검색)

자료 : <http://news.sina.com.cn> 2014.2.27.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mailto:saeii@kmi.re.kr))

## □ CMA CGM, 아프리카시장 영향력 확대 추진

- CMA CGM 그룹은 최근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통해 아프리카대륙 내 사업 확대 표명 등 아프리카 사업을 강조
  - 새로운 캠페인은 아프리카 항만에 최적화된 CMA CGM의 아프라막스 선박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해상과 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복합 운송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주자의 입지를 공고이하기 위한 목적
- CMA CGM 그룹은 2014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시장에서 운송사업 확대를 추진
  - CMA CGM은 이미 아프리카에 진출한 상태지만, 새로운 항로를 개설하고 기항지를 확대해 해상 운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항만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작업을 수행할 계획
  - 또한 내륙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복합운송 솔루션을 제공하고, 부가서비스 확대를 위해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기획할 예정
  - CMA CGM은 DELMAS의 인수를 통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중국을 연결하는 WAX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2006년부터는 아프리카 운송전문 업체로서 시장을 선도하는 물류 기업으로 도약
  - CMA CGM은 현재 43개국에 72개의 사무실을 두고 1,300명의 직원을 통해 25개의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130만 TEU의 화물을 아프리카에서 처리
- 최근 두 달간 CMA CGM은 아프리카 시장 개발을 위해 사업영역의 확대를 추진
  - 2014년 1월, CMA CGM의 자회사인 CMA Terminals는 필리핀 ICTSI가 운영하는 나이지리아 Lekki항의 터미널 운영사 Lekki LFTZ Enterprise의 지분 25%를 매입
  - 또한 동월에 아프리카 모잠비크항을 기항하는 Rhino Express 서비스를 개시
  - 2014년 2월에는 전 세계와 연결된 허브항만인 Khor Fakkan을 통해 소말리아로 향하는 Noura Express 서비스를 개시
  - 또한 세네갈의 수도인 다카르(Dakar)에서는 TCD2라는 컨테이너 운송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세네갈에서 수출입 리더로서의 입지를 구축
  - Mauritania공화국에서는 새로운 대리점 두 곳(Nauakchott, Nouadibhou)을 개설
- CMA CGM은 일련의 광고 캠페인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야망 표출
  - CMA CGM은 앞으로도 아프리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 복합운송서비스 및 對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전망

자료 : [www.marinelink.com](http://www.marinelink.com), 2014.2.12.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mailto:hongwon@kmi.re.kr))



## 물류시장동향

## □ 인도 ECU Line, 아태지역 사업 확장 발표

- 세계에서 가장 큰 LCL 화물 서비스 기업인 인도 ECU Line<sup>1)</sup>은 홍콩에서 열린 기업 설립 25주년 기념 자리에서 아태지역으로의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
  - Awashya 그룹 및 ECU Line 회장인 Shashi Kiran Shetty씨는 향후 아태지역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아태지역에서의 사업 확장 및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와의 통합에 긍정적이라고 발언
  - ECU Line은 향후 LCL 및 FCL 화물 운송서비스뿐만 아니라, 화주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물류에 대한 요구를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예정
  - ECU Line은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sup>2)</sup>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2013년 9월 북미 지역에 9개 사무소·3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Econocaribe Consolidators사를 인수
  - 2013년 로테르담의 FCL 화물 전문기업인 'FCL Marine Agencies' 인수를 담당했던 Econocaribe Consolidators사는 ECU Line의 에이전트
  - ECU Line은 현재 앤티위프, 함부르크,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마이애미, 파나마, 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더반에 지역 물류센터를 보유

자료 : www.seanews.com.tr 2014.2.25.

김은우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 □ Maersk Line, 운임하락으로 4분기 수익 감소

- Maersk Line은 운임하락에 대응해 지출을 최소화했지만 수익은 6.6% 감소
  - Maersk Line은 그동안 선대 재배치와 감속운항(Slow Steaming) 등 다양한 자구책을 시행
  - 작년대비 매출은 3억 3,500만 달러에서 3억 1,300만 달러로 하락했으며 모기업인 A.P. Moeller-Maersk의 세전 이익도 5.9% 감소한 17억 3,000만 달러 수준
  - 4분기 물동량은 8%가 증가한 반면 운임은 6%가 하락하여 운송단위당 수익은 9%가 감소
  - 이와 같은 결과는 Maersk Line이 전세계 컨테이너 운송시장의 15%를 차지하는 선두기업이지만 해운산업의 선복과잉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쟁이 심화되어 운임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
  - Maersk Line은 2014년부터 선복과잉과 운임하락이 진정되어 수익은 전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

1) 인도 뭄바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Awashya 그룹과 ECU Line은 현재 전 세계 90개 국가에 200개의 지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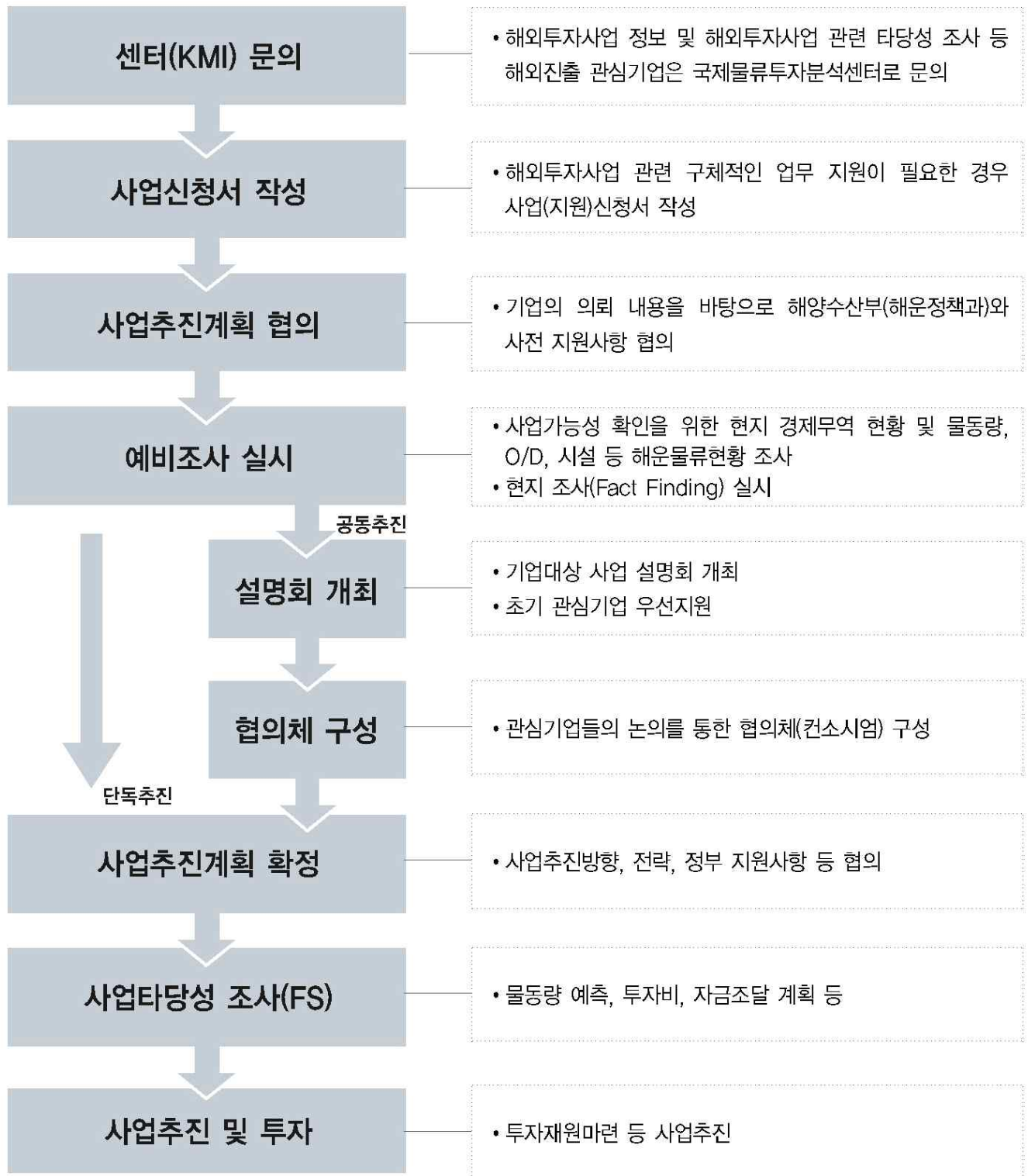
2) 운송수단비보유(무선박)운송인

- 최근 몇 년간 모기업의 사업 다각화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도 Maersk Line의 실적회복 여부에 따라 그룹 실적의 개선 여부도 결정 될 전망

자료 : [www.bloomberg.com](http://www.bloomberg.com), 2014.2.27.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mailto:hongwon@kmi.re.kr))

##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